

# 청렴교육 산실 강진 다산수련원 거듭난다

### 동성리 사의재 일대에 지상 3층 규모 수련원 내달 착공 내년 하반기 완공...올 하반기 교육 3곳에서 분산 진행

‘청렴 교육의 산실’인 강진 다산수련원이 ‘다산청렴수련원’이란 이름으로 내년 하반기 새롭게 거듭난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개관 이후 8년간 청렴 교육을 이어온 다산수련원이 최근 상반기 과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도암면 만덕산 다산초당 자락에 위치한 다산수련원은 다산정신에 기반을 두고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달려왔다. 2011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전국 공무원들이 다산정신을 배우기 위해 강진을 찾았고 지금까지 3만6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특히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과 감성을 자

극하는 푸소(FU-SO)체함과 다산을 콘텐츠로 소명을 깨우는 청렴강의는 청렴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대표 모델로 성장했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착공할 수련원은 강진읍 동성리 사의재 일대에 지상 3층 연면적 2066㎡ 규모이며 생활관은 82명의 교육생이 한꺼번에 숙식할 수 있다. 강진만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정남향의 수련원은 양무정 국공체함과 보은산 등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련원 주변은 사의재, 보은산방 이화재 등 다산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사의재

저장거리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와 4년을 머물면서 6명의 제자를 길러낸 다산 실험사상의 모태가 된 곳이다. 다산청렴수련원이 들어설 사의재 일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강진을 상권과의 접근성도 좋다. 상반기 교육을 마친 다산수련원 자리엔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이 새롭게 자리한다. 새로운 공무원교육원은 다산정신을 더 많은 공직자에게 알리고 강진군이 대한민국의 청렴인재를 양성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닦게 된다. 다산청렴연수원이 완공되기까지 다산수련원 하반기 청렴교육은 3곳으로 분산해 진행할 방침이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칠량면에 있는 초당연수원에서, 공무원청렴푸소(FU-

SO) 교육은 성전면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한다. 다산체험프로그램은 다산기념관 다목적홀에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20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교육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했다. 초당림을 활용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토마토 수확과 농박체험 등 농가 체험이 강화된다. 짚트랙과 민화체험, 다도체험 등 강진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보강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수련원은 청렴한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는 청렴교육의 대표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남도 끝자락 작은 도시 강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렴교육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온 군민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영암군 마을 회관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AED).

## 영암군 마을회관 30곳 자동제세동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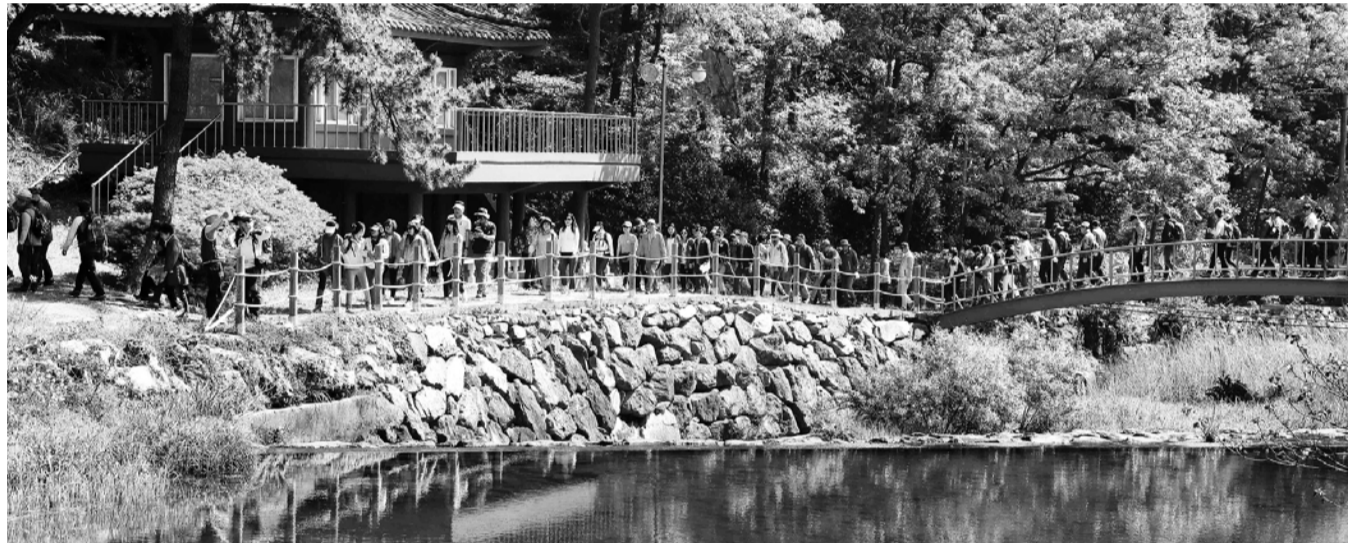
영암군은 119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의 마을 회관 30곳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했다. 자동제세동기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의료장비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심장이 정지되고 5분간 두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으로 인

한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영암보건소에서는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마을 주민들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히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자동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 강진 남도명품길

### 새이름 찾습니다

#### 郡 20일까지 공모



강진 남도명품길 주변으로는 산과 바다가 펼쳐져 있어 관광객에 인기가 높다. 남도명품길을 걷고 있는 관광객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도암면 백련사를 시작으로 다산초당, 석문공원 등 강진의 주요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강진 남도명품길 새 이름을 찾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명품남도길 관광자원화사업에 따라 강진 남도명품길 전 구간을 아우르고 누구나 친근감 있게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선정하고자 지난 15일 공모했다. 산사의 고즈넉함과 그윽한 차향을 체험할 수 있는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다산 정약용이 백련사의 명승 아암 해장선사를 만나기 위해 오가던 사색의 길이다. 인연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길 주변에는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길을 걷다 보면 드넓은 평야와 강진만의 구강포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온 18년 중 10여 년을 생활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한 곳이다. 이곳에 가면 다산 4경이라 불리는 다조와 약천, 정석, 연지석가산을 둘러볼 수 있다.

이어 발걸음을 재촉하면 빼어난 산세와 계곡으로 남도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석문공원에 도착한다. 석문공원은 석문(石門)이라는 이름 그대로 긴 세월과 비바람이 조각한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특히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한 사랑+구름다리(111m)는

남도명품길의 백미다. 이 외에 강진 남도명품길 주변으로 산과 바다가 펼쳐져 있어 관광객에 인기가 높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채택된 이름은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소량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영암군 10월까지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영암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군 전역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인 국가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위치와 표고(높이) 등을 표시한 점으로 건설, 토목공사, 지도제작, 각종 토지정보, 지하시설물 등을 구축하는데 측량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는 삼각점 74점, 수준점 58점, 통합기준점 30점으로 영암 지역 내에 150점이 설치돼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 장흥군 주민 콘텐츠 제작소 ‘예술삼합’ 참가가 모집

장흥군은 올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소 ‘예술삼합’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삼합’은 커뮤니티아트라고도 불리는 공동체 예술의 한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전문예술인이 주민들에게 전문 기술을 전수하면서 공동 창작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은 연극(뮤지컬), 미술(공예), 무용(움직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로 구성됐다. 상반기 운영은 오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7주간이며 하반기는 10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간 무료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장흥군민이나 전문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예술삼합’ 참가자는 오는 7월 27일 개최되는 제11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무



대외,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주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장흥 신혼부부 무료...편백숲 우드랜드에 신혼방 3개동 개장

장흥군은 지난 16일 편백숲 우드랜드에 신혼방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혼방 이용대상은 장흥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결혼장려금 500만원 수혜 부부로 이용요금은 무료다. 장흥군은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 우드랜드 내 숙박시설 3개동을 리모델링해 신

혼방으로 꾸몄다. 군은 이번 신혼방 운영을 통해 출산친화적이고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기 좋은 지역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저출산과 자연인구 감소, 대도시 진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4만명 지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지난달 19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장흥 총각과 새터민 여성 10쌍이 만난 ‘남남북녀 만남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군은 연령과 직업, 결혼의향 등을 고려해 남성 참여자를 선정하고 농촌에 살기를 희망하는 새터민 여성과 남남북녀 만남을 성사시켰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장흥 우드랜드 신혼방 내부 전경.

## 경매 투자

-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자본금 1억이상
- ▶ 월15% 이상 수익
-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